

탈원전·부동산 정상화, 과학기술 지원... 경제·미래 '방점'

尹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민간주도 경제 이니셔티브' 약속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집중 육성 우주시대 대응할 기술역량 확보

윤석열 정부 운영 밑그림이 담긴 국정과제는 크게 6대 방향에 맞춰 110대 주요 과제, 521개 실천 과제가 담겼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요약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등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발표하기에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국정과제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받고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바탕해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고,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만큼 비약적인 성장으로 양극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뉴스1

이라고 밝힌 윤석열 당선인은 "국정 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지지를 반영해 가장 먼저 '공정과 상식에 입각, 정책 원칙은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제시

했다.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국민 피해에 온전한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확보 등 주요 추진 과제가 담겼다.

코로나19 및 세계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이니셔

티브'도 약속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도 만들 것이라는 구상이다. 공정한 경쟁 가운데 중소·벤처 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도 약속했다.

여기에는 ▲전면적인 규제개혁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 시스템 구축 ▲금융·과세제도 합리화(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와 같은 주요 추진 과제도 포함된다.

윤석열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금 고갈 문제가 떠오른 만큼, 지속가능성·공정성 제고 및 국민 노후 소득 마련 차원의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주요 국가들이 과학기술 경쟁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수위는 이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 집중 육성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 확보 ▲미래세대 '청년' 맞춤형 지원 등이 담긴 주요 국정 과제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 것'이라는 구상 하에 ▲과학기술 강군을 통한 굳건한 안보 태세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화·평화 실현 및 통일 기반 조성 ▲장병 복지 및 보훈 강화 등 주요 국정 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라는 기준 하에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 운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위안화 약세 '양날의 칼'... 득이나, 실이나 셈법 '복잡'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수출 늘면서 기업 수익성 제고 '공정' 평가절하로 경제 불균형 심화 '부정'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득실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통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수출이 늘면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이번엔 대내외 환경이 불리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안그래도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 미국의 금

리 인상으로 자금 유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한국의 원화, 대만 달러 등 주변국들의 통화에도 약세 압력이 번졌다.

3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당 위안화의 가치는 4월 한 달간 3.8%나 하락했다. 역외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더 가팔랐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작년 7월 7위 안대에서 6위안대로 진입한 이후 강세를 이어왔다. 3월 초에는 6.3원 안팎의 초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6.6원대로 다시 치솟았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위안화의 가치

가 떨어졌다는 얘기다.

이유는 복잡적이다.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 본격화다. 중국의 경기 둔화까지 맞물리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미·중 간 국채금리 차이가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역전됐고,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는 도화선이 됐다.

이미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유출이 시작됐지만 미국에 대응해 금리를 올릴 여건도 안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상하이 등 대도시들이 줄줄이 봉쇄됐고, 실물지표는 급격히 악화됐다. 경기만 놓고 보자면 오히려 금리 인하를 고민해야 할 상

황이다.

위안화 약세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통화 가치 절하에 따른 수출 증대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느는 것은 물론 벌어들인 외화는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FT중문망은 칼럼을 통해 "현지 통화 약세가 양날의 칼인 일본과 달리 중국 기업들은 양방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수입 가격이 내수를 저해하는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중국 기업들은

스마트폰부터 자동차까지 자체 대체품을 만들어 내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위안화 평가절하가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베이징대학교 마이클 페티스 교수는 "중국과 같은 흑자국은 적자국과 달리 통화약세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위안화 약세는 분명 수출을 늘리겠지만 가계 소득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켜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년보다 더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수요 부진으로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로 전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물가가 상승한다면 기업들의 수익성 역시 더 악화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YEONG-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제17회 영양산나물축제

2022.05.12~2022.05.15

기간 : 5월 12일(목) ~ 5월 15일(일) / 전화 : 054-683-7300
 장소 : 영양군청, 영양전통시장 일원 / 팩스 : 054-683-7301

주최 영양군 주관 UFTF 영양축제·관광재단